



소크라테스 “악! 잠시 쉬어갈게요”



KIA 타이거즈의 ‘북덩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가 코뼈 골절로 잠시 쉬어간다. ‘악몽의 토요일’이었다. KIA는 지난 2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2패를 기록하면서, 6연패 늪에 빠졌다.

패배보다 더 아픈 것은 소크라테스의 이탈이었다.

이날 소크라테스는 4회초 2사 3루에서 SSG 김광현을 상대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3구째 커브가 머리 쪽으로 오면서 소크라테스가 공을 피했다. 그리고 4구째 파울로 1볼 2스트라이크가 됐고 5구째 직구가 소크라테스 얼굴로 향했다.

코와 오른쪽 광대 사이에 공을 맞은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SSG전 김광현 투구에 코뼈 골절 수술 불가피 KIA 타선 치명타 ... 빈자리는 김호령이 채워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소크라테스는 컴퓨터 단층(CT) 촬영 결과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3일 오전 광주로 이송됐고, 조산대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수술은 불가피하다.

KIA 관계자는 “재검진에서도 코뼈 골절을 확인했다. 붓기가 빠지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이후 수술 일정을 잡게 되고, 수술 이후 복귀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힘겨운 전반기를 보냈던 KIA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상 공백이다.

소크라테스는 KBO 5월 MVP에 선정될 정도로 KIA를 대표하는 타자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2일 경기까지 76경기에 출장한 소크라테스는 304타수 101안타, 타율 0.332 11홈런 4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4월 부진을 털고 KIA 타선의 반전을 이끈 소크라테스는 팀 퍼스트를 외치면서 성실함으로 KIA에 녹아들면서 그라운드 밖에서도 동료들에게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팬들에게도 ‘인기 만점’의 선수다. 중독성 강한 응원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강력한 플레이와 팬서비스로도 박수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이날 통증에도 앰블런스를 타기 전 자신을 격정하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면서 팬들을 감동케 했다.

또 3일 자신의 SNS에 “격정해줘서 고맙다. 곧 다시 만나자”는 글을 올려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누구보다 높았을 투수 김광현에게도 “빨리 회복해서 다시 불고 싶다”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나성범이 소크라테스의 SNS에 “얼른 와. 그동안 잘하고 있겠다”고 글을 남기는 등 KIA 선수들은 소크라테스가 건강하게 빨리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KIA는 소크라테스의 빈 자리를 김호령으로 채웠다.

옆구리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었던 김호령은 3일 콜업됐고, 이날 8번 타자 겸 중견수로 1군 복귀전을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오프사이드

기계가 먼저 판정

카타르 월드컵 ‘반자동 판독’ 도입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판정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한다. 심판의 눈이 아닌 카메라가 먼저 오프사이드를 가려내는 ‘반자동 판독 기술’이 도입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내달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스포츠 연구소, 스위스 취리히공대 등과 3년간 개발해온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격하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시점에서 공을 받는 선수의 앞에 최소 2명의 상대 팀 선수가 있지 않다면 오프사이드에 해당하는데, 이는 축구에서 가장 잡아내기 어렵고 오심 논란도 많은 반칙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지붕 아래에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설치돼 공과 그라운드 위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는다.

그러다가 오프사이드 상황이 전개되면 곧바로 비디오판독(VAR) 심판실에 알린다.

SAOT는 선수들의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는 게 아니다. 선수가 어떤 몸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초당 50회 빈도로 읽어낸다. 그러다가 신체의 일부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곧바로 VAR실에 경보를 보낸다.

그렇다고 선수들의 몸에 별도로 센서를 붙이는 것은 아니다. 추적 카메라가 각 선수의 관절 움직임을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 인식하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된다.

오프사이드를 가려내는 시점인, ‘패스하는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도 정확하게 가려낸다.

이번 월드컵 공인구인 ‘알 릴라’ 안에는 관성측정센서(IMU)가 장착되는데, 이 센서가 초당 500회 빈도로 공의 움직임을 VAR실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심판들은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정확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SAOT의 ‘경보’는 먼저 VAR 심판이 확인한다. VAR 심판은 오프사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그라운드의 주심에게 알리게 된다.

주심이 최종 판정을 내리면, 앞서 SAOT가 VAR실에 제공한 오프사이드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영상이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과 중계 방송을 통해 송출된다.

영상에는 선수 신체의 어떤 부분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었는지가 표시된다.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축구 팬들이 명확하게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여자 세계랭킹 1위 시비옹테크

웬블던 테니스 3회전에서 탈락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웬블던 테니스 3회전에서 탈락했다.

시비옹테크는 2일(현지시간) 영국 웬블던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웬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4035만 파운드·약 642억3000만원) 6일째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알리제 코르네(37위·프랑스)에게 0-2(4-6 2-6)로 졌다.

이로써 시비옹테크는 올해 2월 WTA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2회전에서 엘레나 오스타펜코(17위·라트비아)에게 1-2(6-4 1-6 6-7(4-7))로 진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경기에서 패했다.

그 사이 시비옹테크는 37연승을 내달리며 2000년 이후 WTA 투어 단식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다.

여자 테니스에서 37연승은 1997년 마르티나 힝기스(은퇴·스위스) 이후 올해 시비옹테크가 25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여자 테니스의 통산 최다 연승 기록은 1984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은퇴·미국)가 세운 74연승이다.

지난달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 시비옹테크는 웬블던에 약한 면모를 올해도 펼쳐내지 못했다.

그는 클레이코트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2020년과 2022년 우승했고, 하드코트 대회인 호주오픈에서도 올해 4강까지 올랐다.

그러나 유일한 잔디코트 메이저 대회인 웬블던에서는 지난해 16강이 최고 성적이고, 올해는 32강인 3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시비옹테크는 WTA 투어 랭킹 포인트 8576점으로 2위 온스 자베르(튀니지)의 4340점을 크게 앞서 있어 세계 1위 자리는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김포와 무승부 ... 승점 9점 차 1위

K리그2 24라운드

광주FC의 승점 사냥이 재개됐다.

광주FC가 지난 2일 김포송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K리그2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새 외국인 선수 산드로를 앞세워 10개의 슈팅을 날린 광주는 아쉽게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승점을 더하면서 2위 대전하나시티즌과 9점 차 1위 독주를 이어갔다.

이날 광주의 새 외국인 선수 산드로가 그라운드에서 첫선을 보였다.

전반 초반 김포의 공세가 매서웠지만 광주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했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의 크로스를 골키퍼 이상욱이 쳐냈다. 뒤로 흐른 공을 잡아 다시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고, 엄지성의 터닝 슈팅이 나왔지만 상대에 막혔다.

전반 종료 직전 상대의 프리킥 상황을 막은 광주가 0-0에서 후반전을 시작했다.

후반 7분 헤이스가 가슴으로 공을 잡은 뒤 문전으로 뛰어들었지만 상대 골키퍼에 막혀 넘어졌다.

후반 10분 이정호 감독이 이희군과 엄지성을 대신해 마이키와 정호연을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산드로가 후반 17분 아쉬움에 땅을 쳤다. 왼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터치했지만, 김포 골키퍼 이상욱 품에 안겼다.

1분 뒤에는 헤이스의 돌파에 이어 공을 받은 마이키의 왼발 슈팅이 나왔지만 공이 골대 옆으로 흘렀다.

공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광주는 후반 27분 박준강과 아론을 투입해 제공권을 강화했다. 후반 36분에는 최근 감이 좋은 김중우를 넣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기 종료 직전 광주가 마지막 공세를 벌였다.

주어진 추가 시간은 4분, 후반 추가 시간 2분 정도 호영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몸을 날린 골키퍼 이상욱에 막혔다.

후반 추가시간 3분에는 김중우의 크로스를 받은 산드로의 오른발 슈팅이 이어졌지만, 빠르게 날아간 공이 골대 옆으로 향했다.

결국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면서 광주는 0-0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앞선 23라운드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1-4



광주FC의 새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오른쪽)가 지난 2일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패를 기록하면서,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에서 마감했던 광주는 이날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승점을 더하면서 1위 독주를 이어갔다.

2위 대전이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0-2 패로 지면서 1위 광주와의 격차는 9점 차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